

주세로 볼 때 원유의 하루 소비량은 9200만배럴에서 정점을 이룰 것"이라며 "현재 수준이 정점에 매우 가깝

순이익이 46억달러에 그치는 '어닝 쇼크'를 기록하며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5%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다.

자해 북미 셰일가스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. 석유 외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

석은 향후 원유사업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"고 밝혔다.

매일경제
노영우 환경규 기자
2013.08.06
국제갤러리(주)

그림이 있는 여름

직사각형 정원 문성식작



캔버스에 아크릴, 112×324cm

곡선에 탐닉한 한 조각가에게 왜 곡선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현답이 돌아왔다. "자연에는 직선이 없으니까."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인체나 나무, 하늘과 땅이 모두 곡선이다. 그렇다면 자연

이 직선이 된다면 어떨까. 인기 작가 문성식(33)은 직사각형 공간에 자연을 가두는 기발한 상상력을 화폭에 옮긴다. 흰색 배경에 주인공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나무들은 우리가 자연에서 만

나는 나무들과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. 세필로 촘촘하게 그린 이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다가온다. 역발상이 주는 기발한 이미지를 감상해보자. 이항휘 기자